

창선감의록 변용의 문헌학적 접근*

김 병 권**

차 례

- | | |
|----------------|-----------------------|
| I. 서론 | IV. 국문본의 친소관계 |
| II. 유포본 검토 | 1. 유포본의 내적 변용 |
| III. 한문본의 친소관계 | 2. 변용의 문헌적 계열 |
| 1. 유포본의 내적 변용 | V. 한문본 계열과 국문본 계열의 관계 |
| 2. 변용의 문헌적 계열 | VI. 결론 |

I. 서론

구운몽, 사씨남정기, 그리고 창선감의록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난 17세기 변동시대의 대표적인 소설이다. 이 소설들은 한문본과 국문본이 공존하고 있으며, 본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유포본이 존재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문예학적으로 연구하기에 앞서 원본이 확정되어야 한다.

구운몽과 사씨남정기의 경우는 이 방면의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창선감의록에 관해서는 미흡한 상태이다. 창선감의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 작품의 원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창선감의록

* 이 논문은 1996학년도 부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구자들은 원문에 관해서 한문선행설¹⁾과 국문선행설²⁾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본을 확정하는 연구가 작품연구를 위하여 매우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작품의 유포본들을 조사 수집하고, 유포본 사이의 친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는 일은 유포본의 계보를 설정하고 원본을 확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창선감의록의 대부분의 유포본들은 서사자의 서사 행위로 생성된 것이다. 서사자의 행위로 생성된 필사본은 저자의 초고본을 제외하고 모두 대본이 있기 때문에 계보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사본은 문헌의 본성상 변화하기 마련이며, 이 변화는 서사자의 의식적 변화와 무의식적 변화로 구분된다. 이러한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 문헌의 계보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된다.³⁾

이 연구는 창선감의록의 원본을 확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유포본들을 문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문헌 변용의 계보를 설정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첫째, 현재까지 수집한 유포본의 본문을 대조하여 문헌의 변용을 발견하고, 둘째, 본문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근거하여 유포본 사이의 친소관계를 밝히며, 셋째, 유포본의 계보를 작성할 수 있는 준거를 실증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목록, 개인 소장을 조사한 결과, 창선감의록은 100여 종이 넘는 유포본이 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포본 전체를 분석하여 원본을 확정하는 연구는 다음의 연구로 미루고, 이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 가운데 결본과 신헌자본을 제외한 자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1) 차용주, 『창선감의록』, 형설출판사, 1978.

정규복, 「창선감의록과 원감록 및 화진전의 상관성」, 『다독이수봉박사장년기념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2) 강전섭, 「화진전에 대하여」, 한국어문학 13, 1975.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1988.

3) 류탁일, 「사본의 성질」, 『한국문헌학연구』(아세아문화사, 1989), pp.6~9.

II. 유포본 검토

현재까지 수집한 창선감의록은 70여 종이다. 이 유포본을 한문본과 국문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유포본 사이의 본문을 대조하기 위한 기준본과 대비본을 선정하고자 한다. 아래의 자료 번호는 수집한 순서대로 부여한 것이고, '1'로 시작하는 유포본은 한문본이며, '2'로 시작하는 유포본은 국문본이다. 그리고 중간에 빠진 번호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한 결본의 자료번호이다.

1. 한문본

1) 석판본

[101]二葉山房本 : 3권 3책, 大正四年 二葉山房, 倡善感義錄

2) 필사본

[102]탁민본 : 上下 1책, 倡善感義錄, 慶蔚江亭 金裕成

[104]정명기본 : 上下 2책, 倡善感義錄, 癸卯

[107]정명기본 : 2권 1책, 倡善感義錄, 花門忠孝錄(뒷표지)

[111]천리대본 : 上下 2책, 昌(倡)善感義錄

[112]拙修齋集 부록본(여강출판사 영인) : 필사본, 一二 2책, 倡善感義錄

[114]나손본 :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68(pp.3~773), 倡善感義錄

[115]나손본 :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68(pp.277~520), 倡善感義錄

[116]나손본 :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68(pp.523~714), 倡善感義錄

[119]김광순본 : 김광순소장필사본고소설전집 3(pp.1~205), 倡善感義錄

[120]김광순본 : 김광순소장필사본고소설전집 4(pp.370~510), 倡善感義錄

2. 국문본

1) 필사본

[201]박순호본 :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5(pp.447~737), 창선감의록

[203]박순호본 :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96(pp.310~568), 창선감의록(일)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97(pp.494~604), 창선감의록(이)

[214]정명기본 : 3책, 창선감의록

- [222]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 1책, 원감녹, 기미
 [223]서울대학교본: 3권 3책, 창선감의록
 [232]나손본: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65(pp.3~196), 彰善感義錄
 [236]나손본: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65(pp.379~666), 彰善感義錄
 [238]나손본: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66(pp.3~332), 창선감의록
 [239]나손본: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66(pp.335~739), 彰善感義錄
 [247]김광순본: 김광순소장필사본고소설전집 5(pp.1~317), 창선감의록

유폐본의 본문을 대비하여 변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본을 정하고 이 기준본과 대조할 대비본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준본은 작가의 초고본 또는 작가의 의도에 가장 가까운 유폐본이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유폐본이나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생성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폐본을 일단 기준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한문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유폐본은 한문본 [116]이다. [116]의 말미 후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歲之崇禎三元後上章商橫攝提格暮春下泮 走草草一篇可玩故間人借來以拙毫
 騰出以補閱覽之資(p.713)

‘崇禎三元’이란 승정 연호가 시작된 해 간지의 세 번째라는 뜻인데, 이 때가 1808년이다. ‘上章攝提格’은 庚寅에 해당하는 고갑자이며, 1808년 후의 경인년은 1830년이다. 그래서 [116]의 생성된 연대는 1830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문본의 본문을 대비하여 변용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본으로는 현재 수집한 유폐본 가운데 생성연대가 분명한 [116]을 선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비본으로는 유폐본 [102]를 선정한다. [102] 유폐본은 생성연대가 불분명하지만, [102]와 [116]의 본문을 대비하여 본문의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수집한 창선감의록의 유폐본 가운데 한문본 생성의 대상이 된 국문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제시한 국문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유폐본은 [239]이다. [239]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필사 후기가 있다.

너 정월 이후로 신병이 집퍼… 그러는 진서로 번역하미 은문이 익달치
 못하야 말이 잘 되지 못하고 글씨 또한 슈투루니 늘어 보시옵(pp.738~739)

위의 후기는 [239]가 한문본을 대본으로 번역하여 생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그래서 국문본의 본문을 대비하여 변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준본으로는 국문본 가운데 한문본을 번역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239]를 선정한다.

지금까지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검토한 결과, 각 유포본의 대비할 기준본으로는 한문본 가운데 [116]을 선정하고, 대비본으로는 한문본 가운데 [102]를 선택하며, 국문본의 기준본으로는 [239]를 선정한다.

Ⅲ. 한문본의 친소관계

1. 문헌의 내적 변용

기준본인 [116]의 본문과 대비본인 [102]의 본문을 대비해 보면, 많은 수의 문헌 내적 변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변용 가운데 장회명, 제2회 끝 내용, 제7회 끝 내용, 제13회 중간 부분 내용, 그리고 결사의 차이는 유포본들의 친소관계를 밝힐 수 있는 명백한 준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116]과 [102]를 대비하여 발견한 차이 가운데 장회명, 제2회 끝 내용, 제7회 끝 내용, 제13회 중간 부분 내용, 그리고 결사의 차이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른 유포본을 검토하여 계보를 설정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장회명

창선감의록은 전 내용이 14회로 분장되어 있으며, 각 회마다 장회명이 있다. 각 회의 장회명은 내용의 요약 또는 중요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회명만으로도 작품의 줄거리를 짐작할 수 있다.

[116]의 장회명은 다음과 같다.

- | | |
|--|----------------------------|
| 제 1회 : 孝子贊歸計 雙玉定佳緣(p.523 ⁴⁾) | 제 2회 : 魁婦售禍心 亂子吐淫情(p.532) |
| 제 3회 : 回棹青城山 招魂洞庭湖(p.542) | 제 4회 : 桂亭各言志 蓮橋獨行義(p.560) |
| 제 5회 : 君子迎淑女 妖妾結兇客(p.577) | 제 6회 : 慈悲觀世音 意氣都御史(p.597) |
| 제 7회 : 才子齋翠眉 閨女保紅點(p.612) | 제 8회 : 驛店得烈士 仙洞訪丈人(p.630) |
| 제 9회 : 白衣赴廣南 丹符破妖賊(p.642) | 제 10회 : 元戎拜皇詔 美人投匕首(p.660) |
| 제 11회 : 義士逢好逃 孝女副至顯(p.671) | 제 12회 : 饗士錦官樓 策功文華殿(p.681) |
| 제 13회 : 孝婦返舊堂 恨女成好緣(p.693) | 제 14회 : 上壽沈夫人 報德夏閣老(p.702) |

[116]의 장회명을 [102]의 장회명과 대비해 보니 제8회와 제10회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102]에서 제8회와 제10회의 장회명은 다음과 같다.

제 8회 : 驛店遇知己 仙洞訪岳翁(52⁵⁾)

제 10회 : 元戎拜皇詔 刺客投匕首(65⁸)

제8회의 장회명에서는 '烈士'와 '知己', '丈人'과 '岳翁'의 차이가 있으며, 제10회의 장회명에서는 '美人'과 '刺客'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들에 근거하여 다른 유포본들을 검토하니 다음과 같다.

- [101]知己, 岳翁, 刺客
- [102]知己, 岳翁, 刺客
- [104]知己, 岳翁, 刺客
- [107]烈士, 丈人, 美人
- [111]烈士, 丈人, 美人
- [112]烈士, 丈人, 美人
- [114]知己, 岳翁, 刺客
- [115]烈士, 丈人, 美人
- [116]烈士, 丈人, 美人
- [119]烈士, 丈人, 夫人
- [120]烈士, 丈人, 美人

각 유포본 장회명은 '烈士'와 '知己', '丈人'과 '岳翁', '美人'⁶⁾과 '刺客'의 차이

-
- 4) 영인본의 경우에는 영인본의 쪽수를 명기한다.
 - 5) '52⁵'은 제52장 전면을 뜻한다. 이하에서도 출전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되, 후면은 '8'으로 표기하고, 단책이 아닌 경우에는 장수 앞에 책수를 명기한다.
 - 6) [119]에서는 '夫人'으로 되어 있으나, 이 유포본의 계열을 분류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를 나타낸다. 제8회의 장희명을 烈士와 知己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으며, 丈人和 岳翁, 美人과 刺客으로 구분한 것은 烈士와 知己의 차이로 구분한 것과 일치한다.

창선감의록 제8회 장희명은 烈士([107], [111], [112], [115], [116], [119], [120])와 知己([101], [102], [104], [114])로 구분되며, 이 차이는 한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분류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제2회 끝

창선감의록의 제2회는 화진이 운소저, 남소저 두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 성생과 함께 운소저의 집으로 출발하면서 끝난다. [116]과 [102]를 대비하여 이 부분의 변용을 찾을 수 있다.

[116]公子電勉受命 與成生登道焉(p.542)

[102]公子不得已受命 與成生登道 兩人以平生知己 兼中表之情 聯轡并策 吟嘯相和 或登臨山川 或探尋幽迹 不知道途之遙 行役之苦也(10×)

위의 두 본문을 대비해 보면, [102]에는 [116]에 비하여 밀줄 부분의 내용이 부연되어 있다. 그 내용은 두 사람이 함께 산천을 구경하면서 즐기는 내용이다. 두 유포본의 차이를 끝 어구인 '與成生登道'와 '行役之故也'로 정하고 이 차이에 근거하여 다른 유포본들을 검토하니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101]行役之故也(一18ㄱ)

[102]行役之苦也(10×)

[104]行役之苦也(상10×)

[107]與成生登道焉(8ㄱ)

[111]與成生登道焉(상11×)

[112]與成生登道焉(p.245)

[114]行役之故也(p.35)

[115]與成生登道焉(p.299)

[116]與成生登道焉(p.542)

[119]與成生登道焉(p.21)

[120]與成生登道焉(p.385)

한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들은 제2회 끝부분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서 ‘與成生登道焉’([107], [111], [112], [115], [116], [119], [120])과 ‘行役之故也’([101], [102], [104], [114])로 구분되며, ‘與成生登道焉’과 ‘行役之故也’의 차이는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분류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제7회 끝 내용

창선감의록 제7회 끝부분의 내용은 윤공자가 여자의 차림으로 누이를 대신 하여 엄송의 집에 갔다가 월화의 도움으로 엄송이 알지 못하도록 도망갈 때, 월화가 윤공자를 떠나 보내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116]과 [102]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16]月華曰 此門之外 乃四通大路也 使公子改着巾服 流涕而送之焉(p.630)
[102]月華曰 此門外 乃四通大路也 使公子換着巾服 流涕而送之焉(52ㄴ)

[116]과 [102]의 내용은 같다. 그래서 제8회의 장희명이 [102]와 같은 [104]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니 다음과 같다.

[104]月華曰 此門之外 乃四通大路也 使公子換着巾服 以淚送之 曰 別後情懷 已無可論 而今去歸程 遠耶近耶 他日 成都破鏡之重圓 惟在彼蒼天俯憐之中耳 願公子善保千金之軀 用副區區之望(하9ㄴ~ㄱ)

[104]를 [116]과 대비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다. [116]의 ‘流涕而送之焉’이 [104]의 ‘以淚送之’와 다르며, [104]에는 밑줄 부분의 내용이 부연되어 있다. 부연된 내용은 월화가 윤공자에게 자기를 잊지 말 것과 몸을 잘 보존할 것을 부탁하는 이야기이다. 이 차이를 ‘流涕而送之焉’과 ‘願公子善保千金之軀’로 정하고 다른 유포본들을 검토하니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01]願公子善保千金之軀(三41ㄱ)
[102]流涕而送之(52ㄴ)
[104]願公子善保千金之軀(하9ㄴ~ㄱ)
[107]流涕而送之焉(39ㄴ)
[111]流涕而送之焉(상54ㄱ)
[112]流涕而送之(p.279)
[114]願公子善保千金之軀(p.163)
[115]流涕而送之焉(p.396)

[116]流涕而送之焉(p.630)

[119]流涕而送之(p.111)

[120]流涕而送之(p.447)

위의 내용에서 ‘流涕而送之焉’과 ‘流涕而送之’의 차이가 있으나, 이 차이에서 어조사 ‘焉’은 유포본을 분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한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들은 제7회 끝부분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流涕而送之’([102], [107], [111], [112], [115], [116], [119], [120])와 ‘願公子善保千金之軀’([101], [104], [114])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流涕而送之’와 ‘願公子善保千金之軀’의 차이는 한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분류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4) 제13회 중간 부분

창선감의록 제13회 중간에 진공인 화진이 전장으로부터 돌아와서 두 아내를 만나려고 장인인 윤시랑의 집에 가서 윤시랑, 윤부인, 남부인과 담화하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을 [116]과 [102]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16]侍郎笑曰 苟如君言而膠守古禮 則君距三十猶遠矣 世間豈有未娶之國公乎 晉公向夫人歎曰 學生以薄軀藐福 荷天矜顧得 復與夫人等相會 夫臨厄省罪 遇福思災 是天之道也 夫人勿以榮貴自居也(p.694)

[102]侍郎笑曰 苟如君言而必膠守古禮 則君距三十猶遠矣 世間豈有未娶之國公乎 晉公亦笑曰 好哉言也 侍郎起出 晉公向夫人歎曰 學生以薄軀藐德 荷天矜顧得 復與夫人等相會 夫臨禍省罪 晏晏遇福惴惴 是乃事天之道也 夫人等毋敢以榮貴自處也(83×)

두 유포본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102]에 있는 ‘晉公亦笑曰好哉言也 侍郎起出’이 [116]에는 없다.

[101]晉公亦笑而侍郎起出(三31※)

[102]晉公亦笑曰 好哉言也 侍郎起出(83×)

[104]晉公亦笑而已 侍郎起出(下37※)

[107]탈락<56×>

- [111]有間 侍郎起出(下35ス)
- [112]有間 侍郎起出(p.308)
- [114]晉公亦笑已而 侍郎起出(p.247)
- [115]有間 侍郎起出(p.493)
- [116]탈락(p.694)
- [119]有間 侍郎起出(pp.183~184)
- [120]有間 侍郎起出(p.496)

[107]과 [116]에는 다른 유포본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탈락되어 있다. [107]은 다른 [116]과 대비해 보면 전반부의 본문은 서로 비슷하지만 후반부의 본문은 내용이 축약되거나 생략되는데, 위에서 대비한 부분 전체가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116]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서사자가 의식적이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문헌의 상흔’⁷⁾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유포본들에서는 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유포본에서의 차이는 밀줄 친 부분이다. 밀줄친 부분을 검토하면 ‘晉公亦笑(而已)’, ‘晉公亦笑曰 好哉言也’, ‘晉公亦笑而已’, ‘有間’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들은 위의 제13회 중간 부분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晉公亦笑’([101], [104], [114]), ‘晉公亦笑曰好哉言也’([102]), ‘有間’([111], [112], [115], [119], [120]), 그리고 탈락한 것([107], [116])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晉公亦笑’, ‘晉公亦笑曰 好哉言也’, ‘有間’, 그리고 탈락의 차이는 한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분류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사

창선감의록의 끝에는 작품을 총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결사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 내용을 [116]과 [102]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16]噫 忠孝性也 死生禍福命也 命非吾所知也 但當盡吾之性而已矣 范趙雖竭巧彈惡 只令人速富貴 而自剽其命 天亦降罰 王劉之或先或後 相藉而成就 禍福豈人謀之所及哉 彼以意氣相感者 夫黃鵠遺其音 而鶴鶴延其頸杜 若保其香 蓬萊把麴 是固物理也 況雲出而雲從之 馬鳴而馬應之者乎 雖然花氏之樹德 不固則殆 其未易振也<pp.712~713>

7) 류탁일, 「삼국유사의 문헌변화 양상과 변인」, 앞의 책, p.263.

[102] 噫 忠孝性也 禍福命也 非吾所知也 但當盡吾性而已矣 范趙雖竭巧彈惡 抵令人速富貴而自剿其命 天亦可知也 夏俞之或先或後 相藉而成其名 豈人謨之所及哉 彼王劉等 亦意氣相感者也 夫黃鵠遺其音 而鶴鶴延頸 杜若振其芳 而蓬蘽挹颺 固物之理也 況雲出而雲從之 馬鳴而馬應之者 乎 雖…(해손으로 해독 불가)… 不固則始 其未易振也<92ㄱ~ㅎ>

[116]과 [102]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나 현저한 차이는 밑줄친 부분에서 나타난다. 특히 의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天亦降罰’과 ‘天亦可知也’이다. 이 차이에 근거하여 다른 유포본들을 검토하니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01]天亦可知也(三47ㅎ)
- [102]天亦可知也(92ㄱ)
- [104]<탈락>
- [107]天降之罪也(59ㅎ)
- [111]天亦降罰也(하45ㄱ)
- [112]天亦降罰(p.316)
- [114]是固天理也(p.273)
- [115]天亦降罰也(pp.519~520)
- [116]天亦降罰(p.712)
- [119]天亦降罰也(p.204)
- [120]天亦降罰也(p.510)

[104]에는 결사 가운데 이 부분이 “…自剿其命 夫亦義氣相合…”으로 되어 있어, 自剿其命과 夫亦義氣相合 사이에 “天亦可知也 夏俞之或先或後 相藉而成其名 豈人謨之所及哉 彼王劉等 亦”이 탈락되어 있다. 이 탈락은 서사자의 무의식에 의한 변용이라고 판단한다. [104]를 제외한 나머지 유포본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天亦可知’와 ‘天降之罰(罪)’, ‘天降之罪’, 그리고 ‘是固天理也’이다. 이 차이는 다른 기준으로 구분한 분류보다 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결사가 다른 내용보다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들은 결사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天亦降罰’([111], [112], [115], [116], [119], [120]), ‘天亦降罪’([107]), ‘天亦可知’([101], [102]), ‘是固天理’([114]), 그리고 탈락([104])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창선감의록의 결사에서 나타나는 ‘天亦降罰’, ‘天亦降罪’, ‘天亦可知’, ‘是固天理’는 한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분류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문본 창선감의록의 변용을 검토하고, 본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서 유포본을 분류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였다. 이 준거에 따라서 유포본의 계열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변용의 문헌적 계열

한문본 창선감의록의 내용이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는 제8회 장희명, 제2회 끝, 제7회 끝, 제13회 중간, 그리고 결사를 대비하여 유포본을 분류할 수 있는 준거를 앞에서 마련한 바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준거들에 의하여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의 계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앞에서 검토한 각 준거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계열을 설정할 수 있다.

먼저 각 준거들의 상관관계를 유포본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제8회 장희명	제2회 끝	제7회 끝	제13회 중간	결 사
烈士 [107],[111],[112] [115],[116],[119] [120]	與成生登道焉 [107],[111],[112] [115],[116],[119] [120]	流涕而送之 [107],[111],[112] [115],[116],[119] [120]	有間 [111],[112],[115] [119],[120]	天降之罰 [111],[112] [115],[119] [120]
			— [107],[116]	天降之罰 [116]
				天降之罪 [107]
知己 [101],[102],[104] [114]	行役之苦 [101],[102],[104] [114]	流涕而送之 [102]	晉公亦笑曰好哉言也 [102]	天亦可知 [102]
		願公子善保千金之軀 [101],[104],[114]	晉公亦笑(而已) [101],[104],[114]	天亦可知 [101]
				是固天理 [114]
				탈락 [104]

각 유포본은 제8회 장희명에 준거하여 열사와 지기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리고 이 분류는 제2회 끝, 제7회 끝, 제13회 중간, 결사에 준거한 분류와 서로 교체하지 않고 일치한다. 그러나 [102]는 제8회 장희명의 분류와 제7회 끝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다. 각 준거에 따라서 한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첫째, 烈士－與成生登道焉－流涕而送之－有間－天降之罰/天降之罪로 이어지는 유포본
 둘째, 知己－行役之苦－願公子善保天金之軀－晉公亦笑/晉公亦笑曰好哉言也－天亦可知/是固天理로 이어지는 유포본
 셋째, 知己－行役之苦－流涕而送之－晉公亦笑/晉公亦笑曰好哉言也－天亦可知로 이어지는 유포본

이 가운데 셋째의 경우는 본문 형성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유포본이다. 제8회 장희명은 '知己'이지만 제7회 끝의 내용은 제8회 장희명이 '烈士'인 유포본에 나타나는 '流涕而送之'이다. 이는 제8회 장희명이 '知己'로 나타나며 제7회 끝의 내용이 '願公子善保天金之軀'로 나타나는 유포본과 구분된다. 이러한 특징으로써 [102]는 제8회 장희명이 '烈士'인 유포본의 본문과 '知己'인 유포본의 본문이 혼합해 있는 유포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앞에서 변용을 검토한 제8회 장희명, 제2회 끝, 제7회 끝, 제13회 중간, 결사 가운데 가장 쉽게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장희명이다. 그러므로 장희명에 따라서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은 열사계열, 지기계열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본문에 근거하여 열사지기혼합계열로 분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창선감의록 한문본의 변용을 조사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유포본을 분류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 이 준거를 종합하여 계열을 설정하였는데, 그 결과 열사계열, 지기계열, 그리고 열사지기혼합계열로 분류된다.

IV. 국문본의 친소관계

1. 문헌의 내적 변용

국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대비해 보면 한문본에서 찾을 수 있는 차이보다 훨씬 다양하며 복잡하다. 그러나 한문본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장회명, 제2회 끝 내용, 제7회 끝 내용, 제8회 끝 내용, 제13회 중간 부분, 그리고 결사의 내용을 검토하여 국문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1) 장회명

국문본 창선감의록은 장회 구분 및 장회명이 있는 유포본과 없는 유포본으로 우선적으로 구분된다. 장회 구분 및 장회명이 있는 유포본은 [201], [203], [214], [223], [236], [238], [239]이고, 장회구분 및 장회명이 없는 유포본은 [232]이며, 그리고 부분적으로 장회명이 있는 유포본은 [201]⁸⁾, [222]⁹⁾, [247]¹⁰⁾이다. 장회 구분 및 장회명이 있는 유포본들 가운데 [239]의 장회명은 다음과 같다.

제 1회 : 효자는 도라갈 계를 찬하고<이하 훼손으로 해독 불가>(p.335)

제 2회 : 스오는 지집은 화심을 발보이고 어지러운 죽식은 음정을 토한다
(p.352)

제 3회 : 청성산의 뚝터를 돌니고 동정호의 혼을 불우다(p.372)

제 4회 : 계정의서 각각 뜻슬 말하고 런교의서 흥노 의를 힘한다(p.403)

제 5회 : 군자는 숙녀를 맞고 요첩은 흥식을 밋다(p.433)

제 6회 : 준비하는 관세음시오 의기있는 도어스라(p.473)

제 7회 : 지근는 풀은 눈섭을 그리고 규녀는 불근 점을 보존한다(p.500)

제 8회 : 역말 주점의 려스를 엇고 신선동구의 장인을 찾다(p.536)

제 9회 : 희웃스로 광남의 다러가고 불근 부작으로 요적을 파한다(p.562)

제10회 : 원웅은 황조를 결하고 미인은 비슈를 던지다(p.601)

제11회 : 의스는 조흔 비필을 만났고 효녀는 지극한 쇼원을 맞초다(p.627)

8) 제1회, 제2회, 제4회의 장회명은 없으며, 제3회, 제5회, 제6회, 제7회의 장회명은 [239]의 장회명과 같으며, 제8회부터 제14회까지의 장회명은 [239]의 장회명과 다르다.

9) 제1회의 장회명은 “상옥이 가년을 경흠미라”이다.

10) 이 유포본에는 제6회, 제9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그리고 제14회의 장회명이 있고, 한문본에서 차이를 보인 제8회와 제9회에는 장회명이 없다.

- 제12회 : 금관성의서 군수를 맥이고 문화전의서 공을 취한다(p.654)
 제13회 : 효부는 옛당의 도라오고 혼심은 조흔 연분을 일우다(p.688)
 제14회 : 심부인이 슈를 올니고 호각로의 덕을 잡다(p.713)

이 장회명은 한문본 [116]의 장회명과 대비해 보면 각 회마다 한문표기와 국문표기의 차이가 있으나, 내용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한문본 [102]와 대비해 보니 제8회 장회명과 제10회 장회명이 다르다. 그래서 [239]는 제8회 장회명이 '烈士'로 나타나는 한문본을 대본으로 번역한 유포본임을 알게 된다.

각 유포본에서 제8회의 장회명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01]충신흥만리보국 요녀음남참동시(p. 646)
 [203]역점의 득열스르고 선동의 방장인이라(97, p.494)
 [214]역점득열스 선동방장닌(이44호)
 [223]역점득열스 선동에 방장인(二24호)
 [236]역점의 득열스르고 선동의 방장인나라(p.535)
 [238]역점에 열사를 어듬이요 선동에 장인을 차젓도다(p.171)
 [239]역말 주점의 열스를 엇고 신선동구의 장인을 찾다(p.536)

제8회의 장회명으로 보면, [201]은 충신으로 시작하여 완전히 다른 내용이며, 나머지는 한문의 음독 또는 번역의 표현 차이가 있으나, '열사-장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제8회의 장회명의 차이는 충신과 열사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유포본에서 제10회의 장회명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01]공신은 봉작어천혀 궁화난 영접어영웅(p.665)
 [203]원음이 비황조하고 미인이 투비슈로다(97, p.534)
 [214]원음이 비황조요 미인이 투비슈라(이81호)
 [223]원음비황조 미인투비슈(三1호)
 [236]원음이 비황조하고 미인니 투비슈한다(p.579)
 [238]원름이 황조를 비호였고 미인이 비슈를 더젓도다(p.223)
 [239]원음은 황조를 절하고 미인은 비슈를 던지다(p.601)

제10회의 장회명을 보면, [201]은 '공신'으로 시작하여 완전히 다른 내용이며, 나머지는 한문의 음독 또는 번역의 표현 차이가 있으나, '미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제10회의 장회명 차이는 공신과 미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8회 장회명은 차이에 따라서 열사([203], [214], [223], [236], [238], [239])와 충신([201]), 그리고 없음([222], [232], [247])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차이는 국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분류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제2회 끝

국문본 제2회 끝의 내용이 한문을 국문으로 번역한 [239]에서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39]공조 마치 못하야 명을 바다 성심으로 더부러 길을 켜느니라<p.372>

위의 내용은 한문본 가운데 기준본인 [116]의 내용과 같다. 특히 밑줄을 친 '성심으로 더부러 길을 켜느니라'는 한문본의 '與成生登道焉'을 번역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다른 유포본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검토하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타난다.

- [201]성심으로 더부러 길을 켜나가이라¹¹⁾(p.474)
- [203]성심으로 더부러 길을 켜난니라(p.343)
- [214]성심으로 더부러 길을 켜나더라<일23호>
- [222]성심으로 호여곰 공조를 다리고 발행호니라<12스>
- [223]성심으로 더부러 길에 올느더르<천16호>
- [232]성심으로 더부러 발행호니라(p.28)
- [236]성심과 갓치 질의 올은니라(p.409)
- [238]성심으로 더부러 길으 켜나니라(p.372)
- [239]성심으로 더부러 길을 켜느니라(p.372)
- [247]성심을 따라가이라(p.30)

유포본의 본문을 대비해 보면 한문본 '與'에 해당하는 내용이 '더부러', '호여곰', '갓치'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며, 한문본의 '登道'에 해당하는 내용은 '길을 켜나다', '발행하다', '길에 오르다', '따라가다'와 같이 다르다. '與'와 '登道' 가운데 '登道'에 해당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제2회의 끝부분 내용의 차이는 '길을 켜나다', '발행하다', '길에 오르다', '따라가다'로 구분할 수 있다.

11) 장회 구분 및 장회명이 없거나 [239]와 다른 유포본인 [201], [222], [232], [247]은 [239]의 장회 구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국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은 제2회 끝부분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길을 떠나다'([201], [203], [214], [238], [239]), '발행하다'([222], [232]), '길에 오르다'([223], [236]), '따라가다'([247])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국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분류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제7회 끝

국문본 제7회 끝 부분의 내용이 한문본의 번역으로 형성된 [239]에서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39]월화 왈 이문 밧기는 스통오달흔 큰질이오니 공즈 남복을 가라임으
소서 인햐야 월화 눈물 흘니고 공즈를 련련이 리별햐야 보너니라
(p.536)

위의 내용은 한문본 기준본인 [116]의 내용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밑줄을 친 '눈물 흘니고 공즈를 련련이 리별햐야 보너니라'는 그 가운데 '공자를 련련이 리별햐야'를 빼고 나면 한문본 '流涕而送之'를 번역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다른 유포본들에서 이 부분을 찾으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타난다.

[201]눈물을 흘이며 천인입지에 후기를 부탁하여 연연이 보너이라(p.596)

[203]눈물을 흘이며 이별햐더라(p.464)

[214]눈물을 뿌리며 평안이 가시물 천번이나 당부하며 슬픈 마음을 갓신
이 진정햐고 창연이 서로 이별햐더라<이43ㅎ>

[222]옥체보중햐옵소서 햐고 서로 못너 결연하다가 이별햐니라<48ㅎ>

[223]공즈를 위햐야 눈물흘며 보너더라<이24ㅎ>

[232]서로 붓들고 면권햐 점을 이긋지 못햐여 이후 괴약을 당부햐며 눈물
을 흘니며 이별햐니라(p.114)

[236]눈물을 흘니며 스투햐야 보너니라(p.533)

[238]눈물을 흘니고 보너니라(p.170)

[239]눈물 흘니고 공즈를 련련이 리별햐야 보너니라(p.536)

[247]천금지구를 잘 보전햐옵소서 햐더라(p.170)

위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222]와 [247]은 나머지 유포본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222]의 '옥체보중햐옵소서'와 [247]의 '천금지구를 잘 보전햐옵소서'는 약간의 표현 차이가 있지만 한문본의 '願公子善保千金之軀'와 관련된다

고 볼 수 있다. 그 나머지 유포본들은 밑줄친 부분이 부연되기도 하지만, 크게 '보내다'와 '이별하다'로 구분된다. 따라서 제7회의 끝부분의 차이는 '눈물을 흘리며 보내다'와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다', '천금지구를 잘 보전하라', 그리고 '옥체보중하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은 제7회 끝부분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눈물을 흘리며 보내다'([201], [223], [236], [238], [239]),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다'([203], [214], [232]), '천금지구를 잘 보전하라'([247], 그리고 '옥체보중하라'([222])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국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분류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4) 제13회 중간 부분

국문본 제13회 중간부분의 내용이 한문본의 번역으로 형성된 [239]에서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39]시랑이 우셔왈 진실노 군의 말가치 반다시 옛례를 고집히 직킬진더 군이 삼십 더기가 아직 먼이 세간의 엇지 장가들지 못흔 국공이 잇시리오 조곰 잇다가 시랑이 외당의 나가거늘 진공이 윤부인을 향하여 탄왈 학성이 박흔 명과 즈근 복으로 혼날의 불상이 예기심을 입어 부인 등으로 더부러 다시 모드니 더체 화익을 당흔야 죄를 생각흔고 복을 만는 죄앙을 생각홀이 이에 혼날을 생각흔는 되니 부인 등은 감이 영귀홀으로써 스스로 읊흔체 말지여다(p.693)

위의 내용은 밑줄친 부분을 제외하면 한문본 기준본인 [116]의 내용과 비슷하며, 밑줄친 부분의 내용은 한문본 대비본인 [102]와 완전히 다르다. 특히 밑줄친 부분에서 '조곰 잇다가'는 한문본 '有間'을 번역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다른 유포본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타난다.

[201]시랑이 이러나어 가시니<p.708>

[203]윤간의 시랑이 외당의 나가신 후의<p.581>

[214]조곰 잇흔 시랑이 이러는 외당으로 노ᄃᆞᆫ지라<삼39ᄃ>

[222]진공이 또한 웃더니 안이요 시랑이 나아ᄃᆞᆫ미<73ᄃ>

[223]이읍고 시랑이 이러 노ᄃᆞᆫ거날<삼28ᄃ>

[232]<탈락>(p.175)

[236]조금 있다 사랑니 내려 나가날(pp.638~639)

[238]유간에 사랑이 내려 나가시거늘(.p.293)

[239]조금 있다가 사랑이 내려 나가시늘(p.693)

[247]공이 또한 웃더니 사랑이 나가미(.p.283)

위의 밑줄친 부분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한문본의 ‘유간’ 또는 ‘晉公亦笑’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 ‘유간’과 ‘조금 있다가’, ‘이읍고’, 그리고 ‘진공이 또한 웃더니’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유간’과 ‘조금 있다가’, ‘이읍고’는 한문본의 ‘유간’과 관련되고 ‘진공이 또한 웃더니’는 한문본의 ‘晉公亦笑而巳’와 관련된다. 이에 근거하여 제13회 중간 부분의 차이는 ‘유간’과 ‘조금 있다가’, ‘이읍고’, ‘진공이 또한 웃더니’, 그리고 이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은 제7회 끝부분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유간’([203], [238]), ‘조금 있다가’([214], [236], [239]), ‘이읍고’([223]), ‘진공이 또한 웃더니’([222], [247]), 그리고 탈락([201], [232])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국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분류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6) 결사

국문본 창선감의록의 결사 내용이 한문본의 번역으로 형성된 [239]에서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39]회라 충성과 효도는 천성이오 스심과 화복은 천명이니 천명은 능히 알 비 아니여니와 다만 너의 천성을 극진하야 분슈를 짜라 마음가지기를 변홀게 아니라 범혼 장평 조녀 란향 등과 염습 엄세번 염무경 등이 비록 공교호 외와 극진한 스오남을 다하는 다만 스람으로 할야금 부귀를 속히 일우게 하고 스스로 제 몸이 피하야 죽기에 일으니 천도 엇지 무심호리오 왕경과 류이숙은 흑선흑후하야 축훈 스람을 구완하야 필경의 아람다운 일음이 나타나니 엇지 인력의 밋칠 비리오 제 쏘훈 의기에 서로 감동호 비라 그러는 황곡이 소리를 발호미 초요시가 목을 느리고 계약이 향괴를 싸미 봉광풀이 정신을 드되기는 만물 니치에 당연호이라 우황굴음이 일어나미 굴음이 짜르고 말이 울미 말이 울호느니 만일 화씨의 적덕함이 두텁지 못호죽 일어텃 창

되…<이하 책손으로 해독 불가>…(pp.737~738)

위의 내용은 밑줄친 부분의 ‘천도 엇지 무심하리오’를 제외하면 한문본의 기준본인 [116]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런데 밑줄친 부분의 내용은 한문본의 天亦降罰, 天亦降罪, 天亦可知, 是固天理 가운데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다른 유포본에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201]하늘이 벌을 내리어 주시미라(p.737)
- [203]<없음>
- [214]천앙을 입어씨니(삼68ㄴ)
- [222]<없음>
- [223]하늘이 벌을 누리미요(三42ㄴ)
- [232]하나님도 쏘흔 가히 아올니로다(p.331)
- [236]<없음>
- [238]하나님도 쏘흔 가히 아올니로다(p.331)
- [239]천도 엇지 무심하리오(p.738)
- [247]<없음>

국문본 창선감의록에는 결사가 상당히 변화된 유포본이 많다. 예를 들면 위의 유포본들 가운데 ‘없음’으로 표시한 것은 결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도 있지만, 한문본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기회로 미룬다. 이 연구에서는 한문본과 유사한 내용의 결사만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유포본 사이에는 ‘하늘이 벌을 내리다’와 ‘천앙을 입다’, ‘하늘도 알다’ 그리고 ‘하늘이 엇지 무심하리오’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서 국문본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은 결사의 내용에 근거하여 ‘하늘이 벌을 내리다’([201], [223]), ‘천앙을 입다’([214]), ‘하늘도 알다’([232], [238]), ‘하늘이 엇지 무심하리오’([239]), 탈락([203], [222], [236], [247])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분류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문본 창선감의록의 변용을 검토하고, 본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서 유포본을 분류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였다. 이 준거에 따라서 국문본 창선감의록 유포본의 계열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변용의 문헌적 계열

국문본 창선감의록의 내용이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는 제8회 장회명, 제2회 끝, 제7회 끝, 제13회 중간, 그리고 결사를 대비하여 유포본을 분류할 수 있는 각각의 준거를 앞에서 마련한 바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준거들에 의하여 국문본 창선감의록의 계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먼저 각 준거들을 유포본별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제8회 장회명	제2회 끝	제7회 끝	제13회 중간	결사
충신 [201]	길을 떠나다 [201]	눈물을 흘리며 보내다 [201]	탈락 [201]	하늘이 벌을 내리다 [201]
열사 [203],[214] [223],[236] [238],[239]	길을 떠나다 [203],[214] [238],[239]	눈물을 흘리며 보내다 [238],[239]	유간 [238]	하늘도 알다 [238]
			조금 잇다가 [239]	하늘이 엇지 무심하리오 [239]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다 [203],[214]	유간 [203]	탈락[203]
			조금 잇다가 [214]	천앙을 입다 [214]
	길에 오르다 [223],[236]	눈물을 흘리며 보내다 [223],[236]	조금 잇다가 [236]	탈락 [236]
			이읍고 [223]	하늘이 벌을 내리다 [223]
없음 [222],[232] [247]	발행하다 [223],[232]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다 [232]	탈락 [232]	하늘도 알다 [232]
		옥체보중하라 [222]	진공이 또한 웃더니 [222]	탈락 [222]
	따라가다 [247]	천금지구를 잘 보전하라 [247]	진공이 또한 웃더니 [247]	탈락 [247]

위의 표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제8회 장회명은 충신, 열사, 없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장회명에 준거한 분류는 제2회 끝, 제7회 끝, 제13회 중간, 결사에 준거한 분류와 서로 교체하며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제8회 장회명이 충신인 유포본은 제8회 장회명이 열사인 유포본과 유사하다.

셋째, 제8회 장회명이 열사인 유포본은 제2회 끝, 제7회 끝, 제13회 중간이 의미상으로 서로 유사하지만, 결사가 '하늘도 알다', '하늘이 엿지 무심하리오', '천앙을 입다', '하늘이 벌을 내리다'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하늘도 알다'는 '하늘이 엿지 무심하리오', '천앙을 입다', '하늘이 벌을 내리다'와 의미상 구별된다.

넷째, 제8회 장회명이 없는 경우 제2회 끝은 의미상 큰 차이가 없으며, 제8회 장회명이 열사인 유포본의 내용과 비슷하다. 제7회 끝의 내용인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다'는 '옥체보중하라', '천금지구를 잘 보전하라'와 구분된다. 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다'는 제8회 장회명이 열사인 유포본의 내용과 같거나 비슷하며, '옥체보중하라', '천금지구를 잘 보전하라'는 제8회 장회명이 열사인 유포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제13회 중간의 '진공이 또한 웃더니'는 제8회 장회명이 열사인 유포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결사의 '하늘도 알다'는 제8회 장회명이 열사인 유포본과 공통되기도 한다.

위의 분석 결과로 국문본은 제8회 장회명에 준거하여 충신계열, 열사계열, 그리고 제8회 장회명이 없는 무회명계열로 분류되며,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충신계열은 장회명의 차이가 있으나 본문은 열사계열과 유사하며, 열사계열 본문과 무회명계열 본문이 혼합된 유포본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창선감의 록의 국문본은 충신계열, 열사계열, 무회명계열, 혼합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

V. 한문본 계열과 국문본 계열의 관계

국문본의 계열은 한문본 계열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한 작품이 한문본과 국문본으로 공존하고 있는 경우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을 때, 그 선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선후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마루고,

앞서 분류한 국문본의 계열을 한문본의 계열과 대비하여 서로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제8회 장회명이 '열사'인 국문본을 한문본과 대비하기로 한다.

국문본의 기준본인 [239]는 한문본의 번역으로 형성된 유포본임을 앞에서 밝힌 바가 있다. 이 유포본의 제8회 장회명이 '열사'로 나타나며, 제2회 끝의 '길을 떠나다', 제7회 끝의 '눈물을 흘리며 보내다', 제13회 중간의 '조금 잇다가'는 각각 한문본 열사계열의 '登道', '流涕而送之', '有間'의 번역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결사의 '하늘이 엇지 무심하리오'는 한문본 열사계열의 '天降之罰'의 의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39] 형성의 대본은 한문본 가운데 열사계열이 된다.

제8회 장회명이 열사인 유포본 가운데 [239]를 제외한 유포본의 제2회 끝의 내용이 '길을 떠나다'와 '길에 오르다'인데, [239]의 내용과 같거나 비슷하다. 제7회 끝의 내용은 '눈물을 흘리며 보내다'와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다'인데, [239]의 내용과 같거나 비슷하다. 제13회 중간의 내용은 '조금 잇다가'와 '유간'인데, [239]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결사는 '하늘도 알다', '천앙을 입다', '하늘이 벌을 내리다'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하늘이 벌을 내리다'와 '천앙을 입다'는 [239]의 내용과 차이가 있지만, 한문본 열사계열의 '天降之罰'과 같은 의미이다. '하늘도 알다'는 [239]의 내용과 다르며, 한문본 지기계열의 '天亦可知'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결사가 '하늘도 알다'로 나타나는 유포본은 제8회 장회명이 '열사'이지만 본문은 지기계열과 혼합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한문본 열사계열과 같은 계열이 된다.

그러므로 국문본의 열사계열은 한문본의 열사계열과 같은 계열이며, 그 가운데 본문이 한문본 지기계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유포본도 있다.

다음으로 제8회 장회명이 없는 무회명계열 국문본을 한문본과 대비하기로 한다.

제2회 끝의 내용은 '발행하다'와 '따라가다'이다. 이 내용은 한문본 열사계열의 '登道'와 비슷하지만, 한문본 지기계열의 '行役之苦'와는 확실하게 다르다. 따라서 무회명계열의 제2회 끝의 내용은 한문본 열사계열과 같다.

제7회 끝의 내용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다’, ‘옥체보중하라’, ‘천금지구를 잘 보전하라’이다. 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다’는 한문본 열사계열의 ‘流涕而送之’와 같다. ‘천금지구를 잘 보전하라’는 한문본 지기계열의 ‘善保千金之軀’와 같은 내용이다. ‘옥체보중하라’는 ‘流涕而送之’와는 다르며, ‘善保千金之軀’와 비슷한 의미이다. 따라서 무회명계열의 국문본은 제7회 끝의 내용에 따라서 열사계열과 지기계열로 구분된다.

제13회 중간의 내용은 탈락한 경우를 제외하면, ‘진공이 또한 웃더니’이다. ‘진공이 또한 웃더니’는 한문본 지기계열의 ‘晉公亦笑’와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이 유포본은 제2회 끝의 내용으로는 열사계열에 가깝지만, 제7회 끝의 내용은 지기계열이다.

결사의 내용은 탈락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늘도 알다’이다. ‘하늘도 알다’는 한문본 지기계열의 ‘天亦可知’와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이 유포본은 제2회 끝과 제7회 끝의 내용으로 보면 열사계열에 가깝다.

그러므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유포본 가운데 무회명계열 국문본은 한문본과 대비할 때, 열사계열 또는 지기계열이 없으며, 열사지기혼합계열이다.

마지막으로 제8회 장회명이 ‘충신’인 국문본을 한문본과 대비하기로 한다. 이 유포본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국문본 가운데 유일하며, 한문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제2회 끝, 제7회 끝, 결사의 내용이 한문본 열사계열과 같은 내용이며, 특히 결사는 제8회 장회명이 ‘열사’로 나타나는 국문본보다 한문본에 더 가깝다. 따라서 이 유포본은 장회명을 제외하면 한문본 열사계열과 가깝다.

이상의 내용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문본 가운데 열사계열 한문본의 번역으로 형성된 유포본이 있다.

둘째, 열사지기혼합계열이 한문본에서는 지기계열에서 발견되며, 국문본에서는 열사계열과 무회명계열에서 나타난다.

셋째, 국문본에는 충신계열, 열사계열, 열사지기혼합계열이 있으나, 연구의 대상으로 한 국문본 가운데 지기계열이 없다.

넷째, 국문본에는 장회명에 기준한 충신계열이 있으나, 이 유포본은 장회명

으로는 열사계열과 구분되지만 본문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문본과 국문본의 선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접근하지 못하나, 심화 연구한다면 한문본과 국문본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VI.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창선감의록의 유포본들을 한문본과 국문본으로 나누어서 각 유포본의 본문을 대조하여 본문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근거하여 유포본 사이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유포본의 계보를 작성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 이 준거에 근거하여 한문본과 국문본의 계열을 설정하였다.

한문본은 제8회 장희명에 준거하여 열사계열과 지기계열로 분류하였다. 지기계열 가운데 지기계열에는 없으나 열사계열에만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포본을 발견하고, 이를 열사지기혼합계열이라고 하였다.

국문본은 제8회 장희명에 준거하여 충신계열, 열사계열, 무회명계열로 분류하였다. 본문에 근거하여 충신계열은 열사계열에 가깝고, 열사계열 가운데 열사지기혼합계열을 발견하였으며, 연구의 대상 가운데 무회명의 유포본은 열사지기혼합계열이다. 그리고 장희명은 물론 본문의 내용으로도 지기계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문본 계열과 국문본 계열을 대비하여 상호 관계를 규명하려고 했다. 열사계열 국문본 가운데 한문본의 번역으로 형성된 유포본이 있으며, 열사지기혼합계열이 한문본에서는 지기계열에서 발견되며, 국문본에서는 열사계열과 무회명계열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제8회 장희명에 근거하여 국문본에는 충신계열이 있으나, 지기계열이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한 유포본의 계열을 바탕으로 하여 창선감의록의 원본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를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열사지기혼합계열의 경우 한 유포본이 열사계열의 본문과 지기계열

의 본문이 혼합하게 된 연유를 밝혀야 한다.

둘째, 한문본의 열사계열, 지기계열, 열사지기혼합계열 가운데 어느 계열이 앞서는가를 밝혀야 한다.

셋째, 국문본의 충신계열, 열사계열, 무회명계열, 열사지기혼합계열 가운데 어느 계열이 앞서는가를 밝혀야 한다.

넷째, 한문본과 국문본의 관계를 검토하여 그 선후를 밝혀야 한다.

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류탁일 교수님과 정명기 교수님의 후의에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과제를 심화 연구함으로써 창선감의록의 원본을 추정하는 목표에 접근하고자 한다.